

진실을 은폐하려는 검찰

그러나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의 진실은 밝혀진다!

수사기록 3천 쪽, 무엇이 두려워 숨기고 있는가

대한민국 검찰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짜맞추기 수사로 희생자인 철거민을 자살특 공대 혹은 도심테러집단으로 몰더니, 결국 재판을 위한 증거 제시조차 거부하면서 재판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부 방침으로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다만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야 하는 검찰 측 증인들의 수사기록 일부만을 제출하였습니다.

전체 1만 여 쪽 가량의 수사기록 중 무려 3천여 쪽의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수사기록의 3분의 1 가량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변호인단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재판부에 변론 거부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미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재판부는 미제출 기록을 제출할 것을 검찰측에 명령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검찰 스스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4규정을 어기는 범죄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제출을 거부했다가 일부 제출한 기록들을 보면 진압에 동원되었던 경찰 특공대 제대장이나 특공대원들은 망루에 신나가 재여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진압에 투입되었고, 망루

안에서도 4층에서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심지어 화염병 던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까지 검찰수사결과에 반하는 진술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기록들에는 어떤 진술들이 있는지도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법질서마저 부정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검찰

검찰은 처음부터 모든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사망한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힐 의지가 애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의 의혹만 아니라 이미 망루를 탈출한 철거민이 화재사한 시체로 발견된 이유, 검찰이 유족 동의도 없이 서둘러 부검을 진행한 이유, 용역강패들에 대한 수사를 미적거리거나 혐의를 축소한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1월 19일 상황을 과장하여 도심테러 상황으로 보고하고 이에 맞추어 강제진압 작전을 결정하게 된 배경과 결정권자 등 숨은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비슷비슷한 증인들을 61명이나 요청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성사되게 못하게 의도적으로 막는 등,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자기 수순을 밟아온 것이 그동안의

검찰의 행태였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는 경찰 지휘부들의 진술을 포함하여 진압 동원 경찰과 용역강패들의 진술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3천여 쪽의 미제출 기록에는 이명박 정부와 경찰이 명백한 살인행위를 하였음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증거가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는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수사기록을 모두 제출할 것을 명령해놓고도 이를 불이행하는 검찰의 태도를 묵인한 채 재판 속개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신영철 대법원 판사의 촛불집회 관련 개입설로 인해 사법부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마당에서 다시금 이 사건 재판부의 이와 같은 태도는 굴욕스런 사법부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공정성을 상실한 채 검찰의 수사결과를 공인해주는 결과만을 낳을 것입니다. 검찰에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서 형사소송 원칙을 지켜내지도 못하는 재판의 결론을 누가 승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다섯 분의 철거민 열사들이 장례도 못

치른 채 100일이 넘게 냉동고에 누워 있습니다. 사건 직후 대통령의 지시 하에 수십 명의 검찰 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벌였으나 모든 것이 의혹 투성이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자기 손바닥이 크게 보이는 법이지만 조금만 달리 보면 높고 푸른 하늘은 그냥 거기에 있듯이, 진실은 엄연히 여기에 존재합니다.

피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온 유가족과 용산범대위는 진실을 덮으려는 재판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참사의 실체를 규명하지도 못하고 오로지 검찰의 수사결과만을 공인하는 재판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지금 당장 사건의 비밀이 담긴 수사기록 3천여쪽을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며, 재판부는 검찰의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살인진압의 책임자를 심판하는 그날까지 힘을 모아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신종플루 보다 무섭고, 무차별적인 MB 플루 경찰



경향신문 만평

용산참사 100일과 노동절 그리고 촛불 1주년과 관련한 집회 시위 중에 연행당한 시민들은 30일부터 2일까지 모두 221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2일 명동에서 체포된 여학생은 "중학생이에요"라고 호소해도 아무 소용없었고, 잡혀가는 친구를 보고 "내 친구는 미성년자인데 왜 이러느냐"하던 청소년도 체포되었습니다.

시청역 근처에서 체포된 시민악대 4명은 광장에서 즉석공연을 하다가 잡혔고, 시민악대와 함께 체포돼 조사받은 2명은 "우리는 시민악대 공연 구경 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경찰의 무차별적 연행에 항변하였습니다.

"기자도 연행해"라는 지시에 외신인 로이터 통신 사진기자는 경찰에 목이 졸린 채 50여 미터 쯤 연행되어 가다 기자들의 항의로 풀려났고, 경찰은 항의하는 기자들에게 최루액도 뿌렸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일본인 관광객을 붙잡아 폭행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명동에서 연행된 30대 일본관광객은, 외국인 행세를 한다며 경찰에 정강이를 걷어차이며 구타당하다가, 여권을 보이면서 야 인근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4일에는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도

정치적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또 연행되었습니다.

신종플루(돼지 인플루엔자) 보다 더 무섭고, 더 무차별적인 MB플루 경찰의 독성이 3일간 여실히 발휘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성은 용산철거민들을 탄압하고, 촛불시위를 탄압하고, 전 국민을 꼼짝말고 있다고 억박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신종플루 백신보다, MB플루 백신입니다.



지난 1일 경찰이, 지하철 종로3가역 출입구로 나가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장봉을 휘두르고 있다.